

어린이 책꽂이

▲나! =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은 어디에 있을까? 프랑크 작가 위베르 벤 케르너는 책속에는 모험과 지혜가 있고, 모든 상상과 꿈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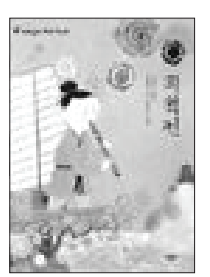
〈맑은 기쁨·1만1천원〉

▲SOS 과학 수사대(제1권) = 과학 발명가 삼촌, 천방지축 태양이, 새침털망 별이가 좌충우돌하며 사건을 해결한다. 제1권 '캡슐로봇을 찾아라'에는 초등학교생들이 알아야 할 감각기관인 눈, 코, 귀, 입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아이즐·8천원〉

▲최적전 = 원전의 뜻과 느낌을 최대한 되살려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우리고전 시리즈' 마지막 권. 임진왜란 등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흩어졌다 이십여 년만에 다시 만난 실존인물 최척과 옥영, 그의 가족이야기를 한문으로 쓴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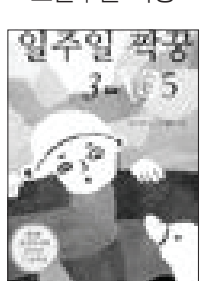
〈창비·9천원〉

▲심청이 무슨 호녀냐 = 구전으로 내려져 온 옛날 이야기를 21세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음대로 바꿨다. 옛이야기 판지걸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읽는 사람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바꿔 읽는 재미가 있다.



〈바람의 아이들·7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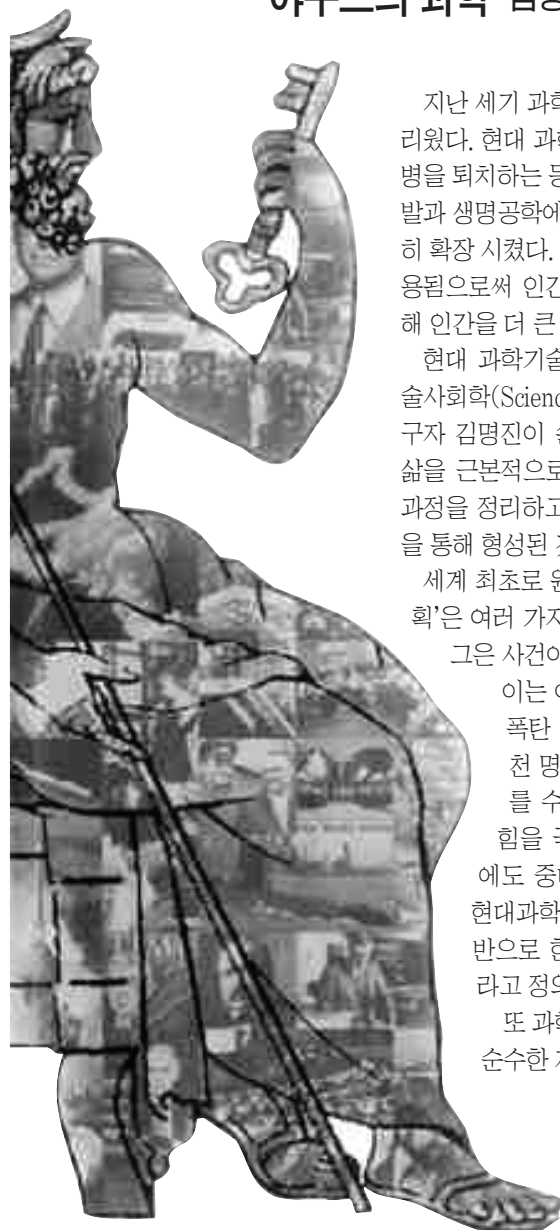
▲일주일 짝꿍 = 제1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수상작 품으로 대어되는 장난감들의 삶을 통해 고단한 세상살이를 보여준다. 장난감에도 주어진 시간을 살 권리가 있고 자기만을 아껴 줄 짝꿍을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신선하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 '선과 악' 현대과학의 딜레마

## 아누스의 과학 김명진 지음



지난 세기 과학은 인류에게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드리웠다. 현대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질병을 퇴치하는 등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주개발과 생명공학에서 볼 수 있듯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이응됨으로써 인간을 살상하는가 하면 생태계를 파괴해 인간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기도 한다.

현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해온 과학기술사회학(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STS) 연구자 김명진이 쓴 '아누스의 과학'은 20세기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그것이 사회나 시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세계 최초 원자폭탄을 개발한 미국의 '맨해튼 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학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이는 이전까지 과학 실천에서 벗어나 원자폭탄 제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체계적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한 전례를 만들었고, 과학이 가진 힘을 극적으로 보여줘 대중의 과학인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저자는 이러한 현대과학의 특징을 국가의 대대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거대과학(Big Science)의 탄생'이라고 정의한다.

또 과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과 냉전은 순수한 자연적 '발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저자는 현대과학을 선과 악 두 모습을 가진 아누스에 비유하고 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신 아누스 상.



분야의 과학인 우주개발과 천문학, 지구과학, 생명공학 등의 발전도 가져왔다. 20세기 중반 미사일과 로켓의 군사적 유용성이 확인되자 한편으로 우주비행과 개발에 대한 꿈을 실현시켰다. 핵개발에서 미국에 뒤진 소련은 우주개발에 뛰어들면서 냉전기의 세력 재편을 시도했으며 이는 유용성을 넘어 체제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띠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수많은 논쟁들에도 주목했다. 원자폭탄, 과학-군부-정치 협력의 여념 없는 엄청난 비극 '대량살상'에 대한 논쟁과 디지털 컴퓨터의 등장과 네트워크 사회 인터넷의 확산이 가져온 쟁점과 문제점, 생명공학의 빛과 어둠에 대한 격렬한 논쟁도 소개한다.

특히 현대 환경운동을 대동시킨 기폭제가 된 레이첼 카슨의 책 '침묵의 봄'(1962년)과 DDT 등 합성살충제 논란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제를 즉 지구온난화, 유전자 변이, 환경호르몬 등을 고찰하면서 이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 논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21세기의 과학기술-과학의 상업화와 새로운 위약'에서 저자는 "과학기술의 미래는 저절로 장밋빛으로 변하거나 필연적으로 암울한 모습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해진 것으로 치부하거나 기성 이해집단의 힘에 굴복하지 말고 과학기술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사계절·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구리 료헤이 '우동 한 그릇'

가로수의 노란 은행잎들이 마치 금단추처럼 반짝이더니 어느새 길바닥에 죄 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하여 가을은 가고 겨울이 온 것이다. 낙엽을 밟으며 걷다가 보면 겨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곤 한다.

이맘때면 한 해도 거의 기울고 우리는 스스로 살아온 날들을 뒤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한 권의 책을 들게 된다. 갈증을 풀어주듯 독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좋은 책을 골라 읽는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 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책은 말 없는 선생님이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이다.

가장 좋은 책은 흥미가 있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읽는 이에게 많은 생각을 일깨워 주고, 큰 감명을 안겨 줘야 한다.

내가 읽어서 크게 감명을 받았던 책은 이광수의 '꿈'과 도스토예

## 가난이 주는 따뜻한 감동



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구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 등이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꿈'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나에게 사람의 진지함과 삶의 성실성을 깨우쳐주었고, 십여년전에 읽었던 '우동 한 그릇'은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었던 따뜻한 인정과 감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구리 료헤이의 동화 '우동 한 그릇'은 내용이지만 감동에 굶주린 현대인에게 따뜻한 눈물을 선물해 줄 만한 책이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경험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다.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설날 그림날 밤 우동집 북해정에서 여섯 살, 열 살쯤의 두 아들과 철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은 어머니가 우동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았다. 주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 그릇 반분의 우동을 내놓았다. 또 이듬해 설날 그림날 이미 중학생 교복을 입은 형과 점퍼바람의 동생, 여전히 색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의 어머니가 찾아와 밝은 목소리로 우동 두 그릇을 시켰다. 이번에도 주인은 눈치채지 못하게 우동 세 덩이를 삶아 두 그릇에 내놓았다.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부상자들에게 매일 오만엔씩 지급해야했고 그 때문에 어렵게 생활했던 세 모자가 설날 그림날이 되면 유명한 북해정에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놓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주인은 알게 되었다. 다음해 설날 그림날 밤 주인은 예약석을 마련해 놓고 기다렸지만 세 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해, 또 그 다음해도 마찬가지였다.

세월이 상당히 흐른 어느 설날 그림날, 의사와 은행원이 된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나타나 우동 세 그릇을 시켰다. 그들은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를 갔었고 추억을 더듬어 북해정 우동집을 찾아와 우동 세 그릇을 시켰던 것이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체험한 어른들이나 가난을 모르고 자라는 요즘의 아이들이 한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동화다. 물질만능과 편의주의에 물들어가는 현대인에게 진한 감동을 주리라 여겨진다.

전원범(시인·이동문학가·광주교대 교수)



## 뉴욕의 미술·패션에 대한 이야기

### 취향 박상미 지음



2004년 발표한 '뉴욕커'를 통해 뉴욕의 예술과 사람들 섬세하게 보여줬던 박상미가 두번째 책 '취향'을 펴냈다.

10년 넘게 뉴욕에 머물고 있는 저자 박씨는 이번 책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인 미술과 패션 중심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책은 패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화가 쇠라의 그림, 화가 발튀스가 살았던 창문이 100개가 넘는 스위스의 낡은 산장 등을 통해 '취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저자는 취향은 어떻게 가지관이나 분별력과 연결이 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며 지켜지는지, 취향과 미적 경험이나 영감은 어떤 관계인지 많은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저자의 글쓰기 매력은 쏟아져 나오는 뉴욕 관련 서적 가운데 단연 돋보였던 '뉴욕커'처럼 이 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마음산책·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남을 움직이게 하는 '조종의 원리'

### ... 인간 조종법 로베르 뱅상 줄 지음



뉴군가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조종하거나.

프랑스 사회심리학 전문가인 로베르 뱅상 줄(엑상프로방스대 심리학과 교수) 등이 쓴 '정직한 사람을 위한 인간 조종법'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조종'의 원리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고 슬기로운 소통의 해법을 제시해준 책이다.

책은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조종'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상대적으로 덜 부담되는 요구를 한 후 진짜 원하는 더 큰 요구를 정하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부탁을 하여 거절 당한 후 그보다는 수월한 요구를 청해 수락하게 하는 '문전박대 자초하기' 기법 등이 소개됐다.

〈공리·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無事는 지금도 옛 명성 그대로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들 듣고 있다. (청강환영)=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 직종 생교서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판정진호지방술  
 '09년 시험안내 개강 12월 1일 (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중)  
 ◎ 시험일자: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6일 시행  
 ◎ 채용인원: 국가직 3,200명, 도·지·군·자치단체 1,000명  
 ※ 공무원시험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응시신청 연결까지  
 ◎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 주·야간반+기초(英·國)공무원특강 ※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했다.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구 서구 (중앙초교 후문)  
 www.mdgosl.co.kr ☎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명보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교육보험 발급과정 본원 ☎ 227-8003 전일여고 맞은편 3F  
 국비지원 재강령제대점 점단원 ☎ 971-0002 (주야간반) 광안동 4F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처음시작하신분들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서울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원지정,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문빌딩 4층